

주간기도정보

2026. 2. 1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태어난 김에 간호선교”… 전주예수병원, 전국 간호대학생 180명과 선교캠프 성료

전국 60여 개 대학 예비 간호사 참여, ‘간호’를 통한 소명과 비전 재확인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지난 5-7일 사흘간 열린 ‘제8회 간호대학생 선교캠프(MCSN·Mission Camp for Student Nurse)’를 전국 간호대학생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60여 개 대학 간호대학 재학생 180여 명이 참가했다. ‘태어난 김에 간호선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캠프는 예비 간호사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기독 간호사로서의 소명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현직 간호사와 선교사, 교수 등 20여 명이 멘토로 참여해 실무 경험과 선교적 삶을 공유하며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비전을 제시했다. 빈영주 예수병원 수간호사는 “간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128년 예수병원의 역사와 정신을 강조했다.

‘병원 밖 간호’를 다룬 세션과 인플루언서 특강도 호응을 얻었다. 인스타그램 ‘삶의 예배자’를 운영하는 윤지혜 간호사와 인플루언서 류하은(하묵)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신앙적 해법을 솔직하게 나눴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전주서문교회, 예수병원 선교묘역,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미션 로드(Mission Road)’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초기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할 작은 사명을 돌아봤다.

참가 학생 최설인(호남대)씨는 “실습 현장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사명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며 “질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행사를 총괄한 김병선 예수병원 선교국장은 “이번 캠프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며 “학생들이 단순한 직업인을 넘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간호 리더이자 선교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프 디렉터로 준비를 맡은 최현경·최하은·조수민 간호사는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며 “학생뿐 아니라 스태프와 조장들 모두가 각자의 꿈과 비전을 다시 발견했다”고 전했다.

한편 8회째를 맞은 간호대학생 선교캠프는 참가자들의 숙박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예수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현금과 후원으로 마련됐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마태복음 25:4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데살로니가전서 1:3)

하나님, 130년 전 하나님 없이 신음하던 조선에 부름받은 한 젊은 의료선교사를 통해 예수병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을 통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병원이 동일한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열방을 섬길 간호선교사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선교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왕 되신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고 인내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한국 사회 각 영역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열방으로 흘려보낼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선교완성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북한 내 마약 확산세 심각… “이젠 생활필수품”

북 마약 사용, 과거 중장년 남성에서 이제 주부와 학생들로…



북한 양강도 지역에서 마약 확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현지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가정을 돌봐야 할 여성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면서 가정 붕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마약을 하는 여성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가정 부인들이 마약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났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지인의 이혼 사례를 언급하며 “아내가 마약에 중독돼 장사 밑천을 모두 탕진하고, 집안 재산까지 몰래 처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해당 부부는 원래 생활 형편이 괜찮고 사이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올해 1월 1일 설날 오후, 동네에서 가정부인 3명이 이른바 ‘얼음’으로 불리는 마약을 사용하다 단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 모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들이어서 주민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는 전언이다.

마약 문제는 성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식통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약 사용이 적지 않다”며 “일부 학생들은 이를 자랑처럼 여기고, 마약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이 주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퍼져 마치 생활필수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7월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했다.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마약 범죄를 별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마약의 불법 제조·채취·밀수·거래 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재산 몰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마약 보관 및 사용, 신고 불이행, 단속 소홀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법 제정 이후에도 마약 유통과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체감은 거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민들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마약을 구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고 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탈북민 출신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소장은 “북한 마약 문제는 과거 외화 획득을 위해 당국이 직접 아편 재배와 마약 제조에 나선 데서 비롯됐으며, 제재로 해외 유통이 막히자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마약을 통제해야 할 안전원과 보위원 등 간부들부터 단속하지 않으면 근절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이 일종의 ‘대체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소장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마약을 만병통치약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고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린도후서 3:5-6)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2)

하나님, 외화벌이를 위해 시작된 북한의 마약이 국내로 흘러 들어가 무고한 주민들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린 이 비극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십시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생활고와 압박에 시달리며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한 마약에 중독된 주부들과 다음세대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그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들이 헛된 욕망과 거짓된 위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 만족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북한 땅을 새롭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족 종교화는 뚜렷한데… 자녀 신앙 계승은 ‘더 어려워’

조사로 본 한국 개신교 가정의 신앙 계승 실태



한국 개신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신앙을 공유하는 이른바 ‘가족 종교화’ 흐름이 뚜렷하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신앙 전수가 가정과 교회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교회탐구센터(송인규 소장)와 IVP출판사(정모세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국기독학생회(IPF) 중앙회관에서 교회탐구포럼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를 열고 가족 종교화와 신앙 계승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취학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한 만 19~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정 구성원 다수가 개신교 신앙을 공유하는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66.4%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머니의 개신교 신앙 비율은 93.9%, 아버지는 78.8%였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강조한 신앙 태도는 예배 참석이 가장 높았고, 현금과 십일조, 친구 관계 속에서의 기독교적 태도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환경이 자녀 세대의 신앙 성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부모의 신앙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신앙 수준은 부모보다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41%가 ‘노력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자녀 신앙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부모인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26.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20.8%), ‘자녀의 학업·일이 우선이어서’(16.4%),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12.9%) 순이었다.

가정 내 신앙 계승을 위해 교회가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부모학교 교육’이 가장 높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가정예배에 대한 구체적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은 “부모와 자녀는 무조건적 사랑을 체득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며 “부모 교육과 부부의 협동, 자녀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가 신앙 전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신앙 계승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은 우려하며, 부모 세대의 신앙 심화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가정예배와 신앙적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이 형성되도록 돋고, 교회 차원의 체계적인 가족 신앙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6-7)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편 110:3)

하나님, 부모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는 다음세대들이 교회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정작 신앙은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 는 소식을 듣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신앙도 확고하지 않다는 많은 부모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먼저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신에게 생명 된 복음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소서. 다음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만나 온 가족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부분적인 변화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부를 기꺼이 주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앞당기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